

K-water Monthly Magazine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9

# 06



상상을 현실로 이끄는 순간들

# VISION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99

2026년 06월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 THEME 1

상상

6월호의 키워드는 'Vision'입니다.

여러분은 'Vision'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상상'입니다. '상상'은 막연했던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일입니다.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생각의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상상의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 THEME 2

목표

두 번째 테마는 '목표'입니다.

상상이 머릿속의 밑그림이라면, 목표는 그림에 방향과 색을 더해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뚜렷하게 세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상상



## 06. 월간 수토픽

기후 리스크 대응의 해법  
디지털 트윈 물관리

## 10. Gallery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 14. Theme Road

상상 그 이상  
'울산'

## 20. Travel Guide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창작 아지트

## 22. Voice on Road

향기로 기억되는 울산의 순간  
정보희 조향사

## 26. The Kit

세상에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 28. Taste Note

상상력을 더한  
이색 요리

# 목표



## 30. Theme Prism

내일을 설계하는  
Vision

## 32. Opinion

목표를 향한  
과정까지 행복할 것

## 34. Talk with

연기 안에서도 연기 밖에서도 빛나는 이름  
배우 하정우

## 38. 커피차가 간다

충남의 물길을 지키는 히어로들  
충남중부권지사

## 42. Water & Tech

AI 혁신이 이끄는  
새로운 경제와 물관리

## 46. Light on

2026년 직원이사회  
타운홀 미팅

## 48. Newsroom

## 52. Water Lounge

진흙 속에서 피어난 고귀한 꽃들의 정원  
세미원

## 56. Monthly Issue

'물멍' 골든타임 6월,  
지금 떠나야 하는 이유

## 58. Water Tales

사랑을 꿈꾼 물의 정령  
운디네

## 60. #알고리즘

##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6년 6월 1일 | 통권 699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공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 기후 리스크 대응의 해법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가뭄이 일상화되면서, 물관리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측 기반의 리스크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여름철 홍수대책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과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물관리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 올여름 홍수 대책 ‘지능형 대응’ 강화

최근 우리나라 날씨는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장마는 짧아졌는데 한 번 비가 내리면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진다. 지난해에도 장마 기간 강수량 자체는 예년보다 적었지만, 서산·산청·가평 등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짧은 시간에 비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극한호우’가 일상이 되면서 정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강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대응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농업용 저수지·발전댐·하굿둑 등을 활용하여 한탄강댐 3개 규모에 해당하는 10억 4천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해, 총 118억 6천만 톤 규모의 물그릇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도시침수예보로 위험을 예측, 강남역 등 침수 위험지역에는 침수주의보·침수경보 체계를 도입하고, 홍수 위험지역에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28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현장에서 홍수기 특별대책 회의와 실전형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극한홍수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정부의 홍수 대응 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시작 전인 6월 20일까지 20개 다목적댐 수위를 전체 저수용량의 절반 이상까지 낮춰 총 68억㎥ 규모의 '물그릇'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댐 설계 홍수조절용량(21.8억㎥)의 약 3배를 웃도는 규모로, 롯데월드타워를 약 4,500번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상예측과 디지털 트윈 활용 현황, 비상시 대응 절차, 하류 주민 안내 체계, 홍수기 전 물그릇 확보 현황, 홍수기 댐 운영방안, 수문 및 방류설비 운영 상태 등 현장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전사적 실전 홍수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했다.

**예측-시뮬레이션-의사결정까지 있는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기술은 이러한 선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수자원 환경을 디지털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강우량, 하천 수위, 댐 운영현황 등 유역 내 모든 물관리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분석·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물관리 기술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인 '디지털 가람 플러스(Digital GARAM+)'는 물 관련 데이터와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향상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강우 조건에 따라 최대 48개의 방류 시나리오를 동시에 분석해 최적의 댐 운영을 도출하는 방식은, 단순히 현황 모니터링을 넘어 미래 위험까지 예측하는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현재 전국 56개 댐과 보시설에 적용해 운영 중이며, 드론 기반 고정밀 3D 지형 구축과 고해상도 객체정보 생산, AI CCTV 기반의 침수·보행자·차량 감지까지 접목해 모니터링과 홍수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 플러스를 통해 지난해 7월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에도 수문 방류 없이 유입량을 전량 저류하며 홍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였다.

**글로벌 기후 리스크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K-물관리 기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물재해와 물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해법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물관리 시장은 2024년 190억 1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12.5% 성장해 2034년 61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술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으며 성과를 넓혀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에서는 도시홍수 대응을 위한 디지털 트윈 파일럿 플랫폼 구축에 참여해 지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시뮬레이션 가시화 기능 개발을 완료했으며, 후속 사업을 통해 제다 전역과 메카메디나 등 타 도시로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야마가타현 나가이시와는 디지털 트윈·드론 기반의 재난 대응 물관리 운영체계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일본 내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위한 협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Valley Water와 디지털 트윈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유역 단위의 댐·정수장·관로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술은 단순한 인프라 운영을 넘어, 물관리 기술의 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핵심 분야가 될 것이다. 과거 물산업이 댐과 관로를 만드는 '건설 중심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디지털 물관리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아시아의 기후재난 대응, 물관리 선진국의 노후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물관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K-물관리 기술은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해법이자 데이터 기반 물관리 솔루션 수출을 이끄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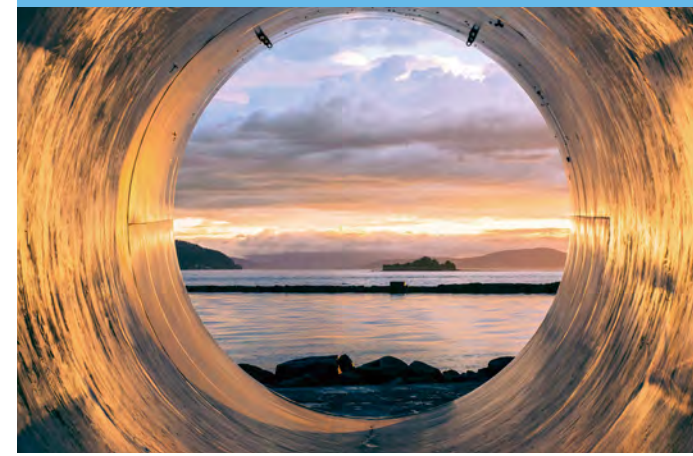
# VISION

##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운전자 없는 자동차, 청소하는 로봇 등  
한때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이전에는 없던 가능성을  
천천히 펼쳐 보입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는 일은  
징검다리를 건너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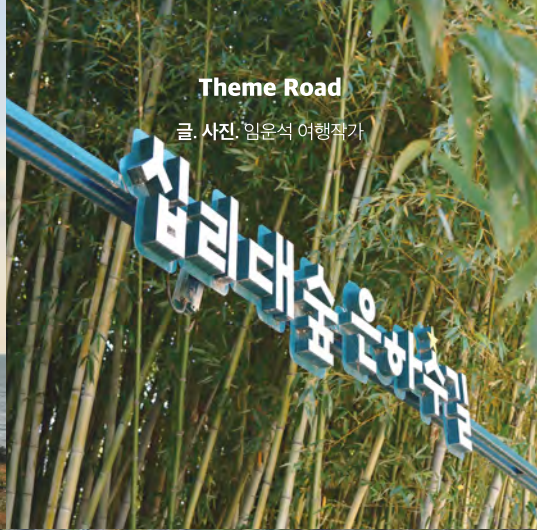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노력들은  
현재의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며  
멀게만 보이던 목표도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향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 Shaping the Future





Theme Road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상상 그 이상

# 울산

차가운 공업도시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울산의 진짜 재미가 시작된다. 1970년대 레트로 감성과 푸른 돌고래를 동시에 만나는 장생포고래문화 특구를 시작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간절곶의 장엄한 풍광,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숲으로 기적처럼 거듭난 태화강 국가정원의 초록빛 설표, 그리고 선사인의 예술혼이 깃든 반구대 암각화와 울산의 예술 거점이 된 북구 창작공간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상상 그 이상의 울산을 마주할 시간이다.





입고 골목을 누벼보자. 고래 해체장부터 추억의 학교, 우체국, 당시 포수들의 집까지 정겨운 풍경이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삭막한 도시 이면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역동적인 삶의 흔적을 마주하게 된다.

이 마을의 매력은 단순히 과거를 박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래와 함께 살아왔던 이들의 꿈과 상상을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로 생생하게 풀어냈다. 덕분에 여행객들은 '이야기가 살아있는 울산'을 온전히 경험한다. 구석구석 자리한 익살스러운 조형물과 벽화들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상상 속에 존재하던 과거의 활기를 현실로 불러내며, 동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책으로 만든다.

마을에서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국내 유일의 고래 전문 박물관인 장생포고래박물관에 닿는다. 박물관에는 거대한 고래 골격과 실제 포경선이었던 '제6진양호'가 원형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한때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살아야 했던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가슴 깊이 실감하게 된다.

돌고래의 일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시형 수족관, 고래생태체험관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다양한 수중생물을 만나는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역할도 겸한다. 조용히 헤엄치는 돌고래의 몸짓은 우리에게 해양 생태계 보존이라는 소중한 미래의 과제를 던지시 건네고 있다.

### 울산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울산 하면 으레 거대한 공장 굴뚝과 차가운 철강의 풍경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고정관념은 기분 좋게 무너진다. 특구에 조성된 고래문화마을은 과거 포경 산업의 전성기를 누렸던 장생포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공간이다. 골목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을 되돌려 1970년대 어촌 마을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시간 여행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옛날 교복을 빌려



### 울산의 자랑, 간절곶의 소원과 태화강의 기적

동해안 끝자락의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곳이다. 매년 초가 되면 이 장엄한 풍광을 마주하려는 이들이 전국에서 구름처럼 몰려든다. 가장 먼저 어둠을 깨운다는 지리적 상징성은 무척 강렬하다. 덕분에 이곳은 삶의 중대한 분기점에 선 이들이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거대한 소망우체통은 간절곶의 랜드마크다. 여행자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엽서에 꼭꼭 눌러 담으며 미래의 나에게 보낼 다짐을 적어 내려간다. 탁 트인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일상의 무기력증을 단숨에 날려버리고, 잠자던 에너지를 몸속 가득 채워준다.

이곳에는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먼바다를 응시하는 모녀상이 있다. 왜국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신라 총신 박제상 아내의 설화가 깃든 동상이다.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보는 모녀의 시선에는 애달픈 서글픔이 깊게 머물러 있다. 그 옛날 모녀가 가슴에 품었던 간절한 염원은 오늘날 이곳을 찾는 이들의 소망과 묘하게 겹친다.

### 장생포고래문화마을

**A**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1  
**T** 052-226-0980

### 장생포고래박물관

**A**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T** 052-256-6301~2

### 간절곶

**A**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T** 052-204-1000

간절함이 거친 바다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면,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치유와 회복을 상징한다. 한때 태화강은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폐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던 '죽음의 강'이었다. 하지만 이 절망의 강은 민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지금의 눈부신 초록빛 정원으로 거듭났다. 정원의 중심에는 4.3km에 달하는 십리대숲이 울산의 청정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거대한 대숲의 역사는 깊다. 일제강점기 시절, 잦은 홍수로 농경지 피해가 극심해지자 수해를 막기 위해 백사장 위에 대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였다. 과거 홍수를 막아주던 생명의 방어벽이 이제는 도심 속 가장 거대한 휴식처로 진화한 셈이다. 대숲은 바람이 지날 때마다 댓잎의 노래를 들려준다. 이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도심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이내 잊게 된다. 공업도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녹색 정원과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숲으로 거듭난 태화강의 극적인 변화는,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선명하게 일깨운다.

**태화강 국가정원**

- A**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 T** 052-229-3147



**암각화에서 창작소까지, 시대를 잇는 울산의 상상력**

태화강 상류 대곡천을 따라가면 거북이 엮드린 형상의 반구대에 닿는다. 이곳 절벽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높이 4.5m, 너비 8m 규모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바위에 새겨진 선사시대 그림은 육지와 바다 동물을 아울러 총 200여 점에 달한다. 특히 고래 묘사가 압도적이다. 물을 뿜는 북방긴수염고래, 새끼를 업은 귀신고래 등 종류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다. 선사인들이 조직적으로 고래를 사냥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을 담은 유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암각화 앞에 서면 시대를 초월한 예술 작품과 교감하는 기분이 든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풍요로운 내일을 꿈꿨던 이들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진다. 인근의 국내 유일 울산암각화박물관에서는 정밀한 실물 모형과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 현장에서 멀리 보았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가 선사인들의 흔적이라면, 울산 북구에는 현대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이 있다. 신천동의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경도2020'은 옛 신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어두운 탄광에서 광물을 캐내듯 메마른 일상에서 예술 감성을 발굴한다는 의미와 개관 연도를 이름에 담았다. 이곳은 매년 시각·공연·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선발해 레지던시를 운영한다. 입주 작가에게는 창작공간과 지원금, 평론가 매칭 등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들은 소개전을 시작으로 연말 결과보고 기획전시까지 개최하며, 지역 공동체와 예술을 매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염포동의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는 시각예술 중심의 전문 창작 지원 공간이다. 과거 소금 포구였던 지역 정체성을 살려, 소금이 물에 스며들듯 예술 에너지를 지역 사회에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이름에 반영했다. 숫자는 정부의 레지던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도다. 이곳 역시 전국 공모로 동시대 미술을 이끌 우수한 입주 작가들을 발굴한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개인 스튜디오와 창작활동비, 평론 매칭 등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작가들은 봄 소개 전시를 거쳐 가을과 겨울 최종 결과보고전을 개최하며 대중과 호흡한다.

이처럼 울산의 창작공간들은 선사시대의 에너지를 이어받아 현대적 상상력으로 피어나고, 예술가와 지역민은 예술을 통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한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풍요를 꿈꿨던 선사인들처럼, 울산은 이제 더 가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울산암각화박물관**

- A**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안길 254
- T** 052-229-4797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경도2020**

- A**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3길 6-9
- T** 052-296-2020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 A**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
- T** 052-289-8169

## Travel Guide

글. 편집실 사진 제공. 한국관광공사, 각 공간 제공

#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창작 아지트

어떤 공간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과 마주하는 듯한 분위기를 준다. 텅 빈 캔버스 같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의 파편들이 흩뿌려지는 곳. 창작공간이 그런 곳이다. 일상에 작은 영감이 필요하다면, 지금 창작 아지트로 떠나보자.

### 달천예술창작공간

알록달록한 벽화와 멀리서도 눈에 띄는 붉은색 포인트가 인상적인 달천 예술창작공간. 2021년에 개관한 이곳은 폐교였던 '달천분교'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탄생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시실과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시와 창작 활동, 문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현재 입주 작가들이 머물며 회화, 멀티미디어, 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와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방문객들은 작품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 A**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515
- T** 10:00~18:00
- T** 053-583-4276



### 예술창작공간 해움

'함께 옴트다'라는 의미를 담은 예술창작공간 '해움'은 전 고양600년 기념전시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이다. 전시실과 작업 공간, 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머물며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회화와 공예,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한다. 입주 작가의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활동을 통해 작품을 보는 즐거움에 직접 경험하는 재미까지 더했다. 덕분에 예술창작공간 해움은 예술가들에게는 자유로운 작업실이자 시민들에게는 문화와 상상을 만나는 열린 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 A**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 T** 10:00~17:00
- T** 031-906-3380

# 창작

### 팔복예술공장

한때 기계 소리로 가득했던 산업 공간이 이제는 예술과 상상력이 흐르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팔복예술공장은 옛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개조해 만든 복합예술공간으로, 오래된 기계와 공장 구조물을 일부 그대로 남겨둔 덕분에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처럼 느껴진다. 공간 내부에는 전시관과 창작 스튜디오, 공연장, 교육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방문객들은 입주 작가들의 작업 공간과 함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팔복야호예술놀이터, 유아예술놀이터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세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A**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 T** 10:00~18:00(17:30 입장 마감)
- T** 063-211-0288



# 공간

### 헤이리예술마을

파주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농요 '헤이리소리'에서 이름을 따온 헤이리예술마을은 예술인과 예술 공간이 한곳에 모여 있는 예술공동체 마을이다. 경기도 최초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미술관과 갤러리, 북카페, 공연장, 공방 등이 골목마다 이어져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영감을 만나게 된다.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마을 곳곳에는 독특한 외관의 건물과 감각적인 예술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거대한 야외 전시장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이다. 무엇보다 화가,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조성한 마을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전시와 공연, 행사가 수시로 열리며,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여행객들로 활기를 띤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감각과 상상력을 충전하고 싶다면 천천히 걸어보기 좋은 공간이다.

- A**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 T** 09:00~20:00(각 공간별로 상이)
- T** 031-946-8551



상상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만든다. 정보희 조향사는 울산의 바다와 숲, 사람과 이야기를 향으로 상상하고 현실로 풀어낸다. 코끝에 스치는 작은 향 하나가 어느새 울산이라는 도시의 풍경과 감정을 떠올리게 만든다.

# 향기로 기억되는 울산의 순간

정보희 조향사



**코끝으로 만나는 울산**

향을 맡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 때가 있다. 비 온 뒤 흄냄새, 바닷가의 짝조름한 공기, 막 세탁한 이불에서 나는 포근한 향처럼 말이다. 조향사 정보희 씨는 바로 그런 기억의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다. 조향사는 여러 향료를 조합해 새로운 향을 만드는 향 전문가다. 향수뿐 아니라 화장품, 비누, 샴푸, 세제 등에 들어가는 향을 만들고 분석하는 일도 맡는다. 정보희 조향사의 작업은 여느 조향사와 다르다. 울산을 떠올리게 하는 로컬 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조향은 친구 권유로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먼저 향을 상상한 뒤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흥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향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특히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감정과 기억을 오래 붙잡아둘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결혼 후 울산에 살면서 이 도시만의 분위기를 향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외지인에게 울산은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바다와 숲,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다고. “울산은 생각보다 훨씬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였어요. 그 분위기를 향으로 전하고 싶었죠.” 그가 울산향유고래향, 울산십리대숲향, 울산들장미향 등 울산을 떠올릴 수 있는 로컬 향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좋은 향보다 중요한 건 스토리**

정보희 조향사는 단순히 예쁘고 좋은 향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는 향 안에 지역의 역사와 풍경, 스토리까지 담아낸다. 대표적인 향이 바로 ‘울산향유고래향’이다.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인 고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향이다. 그는 고래가 깊은 바다를 유영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엠버그리스 계열 향을 메인으로 사용했고, 여기에 바다의 시원함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시트러스 향을 더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느낌을 담고 싶었어요.” 향 설명을 듣고 말해보면 정말 푸른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가 떠오른다. 향 하나가 눈앞에 풍경을 펼쳐놓는 셈이다. 그는 로컬 향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어떤 향으로 표현할지 고민한다.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계속 상상하게 돼요. 이야기가만 들어지면 이제 그걸 향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죠.” 좋은 향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좋은 향료를 잘 조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향은 다르다고 말한다.



“저는 모든 향에 생각과 이야기를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의 향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도시를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진다. 울산에 가본 적 없는 사람도 향을 맡으면 어렴풋이 도시의 분위기를 상상하게 된다. 시원한 바다, 대숲의 바람, 오래된 산업도시의 묵직함까지 느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울산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슬며시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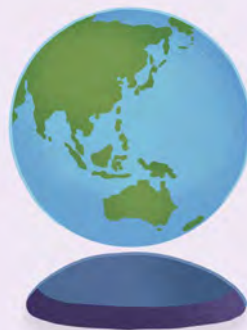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향기**

정보희 조향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향을 통해 감정을 느꼈다고 말해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스토리가 향으로 느껴진다, ‘위안이 됐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사람들과 향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아한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과 기억이 다르다는 점이 재미있다고. 그래서 그는 향수가 단순한 치장의 개념으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향기를 통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울산 중구·남구·북구를 담은 향은 이미 완성됐고, 동구의 바위섬 슬도를 배경으로 조선 산업의 이야기를 표현한 향을 제작 중이다. 또 울산장생포수국향 출시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울산의 향을 더 넓은 무대에 알리고 싶다는 꿈도 품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향은 단순한 향 이상의 의미라는 걸 알게 된다. 그가 만든 향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각인되고, 그 향은 결국 울산이라는 도시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 세상에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세상에는 정말 별난 것들이 많다.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싶은 아이템들 말이다. 보기만 해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기한 물건들. 웬지 이런 것 하나쯤 있으면 무언가 반짝이는 영감이 매일 떠오를 것만 같다.



## 정답이 없는 이야기

### 스토리큐브

상상력이 막혔을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영감이 아니라 주사위 한 번일지도 모른다. 스토리큐브는 주사위를 굴러 나온 그림을 연결해 이야기를 만드는 놀이 교구다.

달, 자전거, 열쇠 그림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달빛 아래 자전거를 타고 비밀 열쇠를 찾으러 떠났다”라는 모험 이야기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달나라 자전거 도둑 사건” 같은 이야기로 시작할 수도 있다. 스토리큐브는 같은 그림이어도 수만 가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게 매력 아닐까.



## 세상 뒤집히는 경험

### 거꾸로 안경

거꾸로 안경은 우리가 보는 풍경을 뒤집어 보여주는 체험 도구다. 안경을 쓰는 순간 위아래는 물론 좌우까지 반전돼 보인다. 그 이유는 광학 기술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빛이 렌즈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상이 뒤집혀 맺히는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 프리즘을 활용해 실제 사물이 거꾸로 보이도록 만든다.

거꾸로 안경을 처음에 쓰면 어지럽고 낯설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뇌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한다. 익숙했던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셈이다.

## 둥둥 떠 있는 지구

### 공중부양 지구본

책상 위에 지구가 둥둥 떠 있다면? 공중부양 지구본은 이름 그대로 허공에 떠 있는 신기한 지구본이다.

원리는 자기력과 중력의 힘이다. 전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이 지구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중력은 아래로 끌어당긴다. 이 두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 지구본은 공중 한가운데에서 멈춘다.

여기에는 자석의 성질도 숨어 있다. 서로 다른 극은 끌어당기고, 같은 극은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 공중부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동제어 장치까지 더해지면 지구본은 안정적으로 빙글빙글 회전한다.



## 허공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법

### 테레민

손도 안 대고 연주한다고? 테레민은 허공에 손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전자악기다. 러시아 물리학자 레온 테레민이 1920년대 개발했으며, 두 개의 안테나 주변에 형성되는 전자기장을 손으로 조절해 소리를 낸다. 막대 모양 안테나는 음정을, 고리 모양 안테나는 음량을 조절한다. 연주자는 악기를 만지지 않은 채 허공에서 두 손을 움직이며 연주한다. 그래서 연주 장면을 보면 마치 마법사가 지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유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소리 덕분에 SF 영화나 미스터리 음악에도 자주 사용됐다.

## 상상력을 자극하는 3가지 방법

### 1. 만약에 질문하기

‘만약에 중력이 지금의 절반이라면?’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법칙이나 관습을 뒤집어 생각해보자.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가 전혀 새로운 상상을 열어준다.

### 2. 디지털 디톡스하기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푹 떠오르기도 한다.

### 3. 결과보다 ‘재미’있게 생각하기

‘잘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보다 ‘이거 재밌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의외로 아이디어가 술술 나온다.

Taste Note

글. 최행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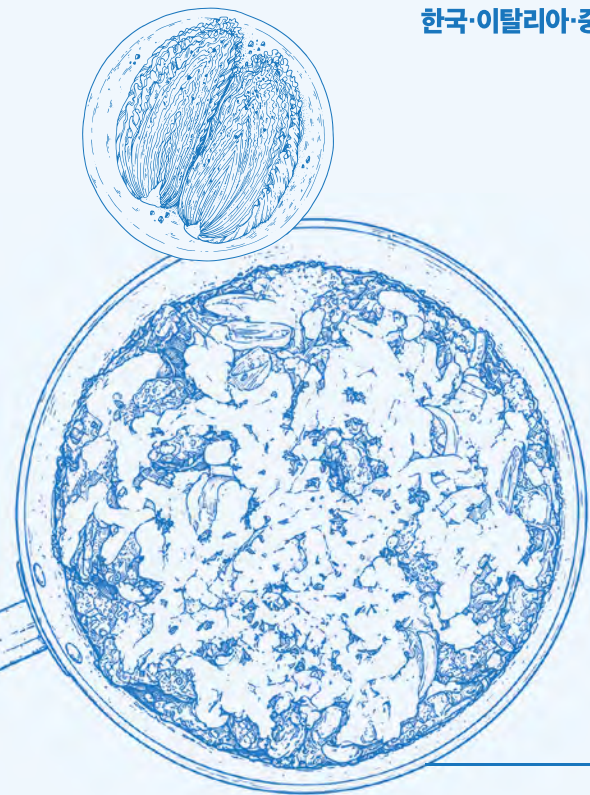
한국·이탈리아·중국의 대통합

# 김피탕

가끔은 예상 밖의 조합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이로부터 범상치 않은 김치피자탕수육, 줄여서 김피탕이 그렇다. 탕수육 위에 피자치즈와 김치를 얹어 한꺼번에 즐기는 요리다. 한국의 김치, 이탈리아의 피자, 중국의 탕수육이 한 접시에 만난 셈. 처음 보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지만, 막상 먹으면 밸런스가 놀라울 정도다. 달콤한 탕수육에 새콤한 김치, 쪽 늘어나는 치즈까지 더해지면서 ‘맵짠단(맵고 짜고 달콤한 맛)’의 완벽한 삼박자를 완성한다.

여기서 핵심은 김치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치즈와 탕수육을 김치의 산미가 깔끔하게 잡아준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자주 생각난다”라는 후기가 줄을 잇는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남은 탕수육을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데운 뒤, 김치와 피자소스를 넣고 볶아준다. 마지막으로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녹이면 완성. 시원한 콜라나 할라피뇨까지 곁들이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콜라에 땅콩을 넣는다는 상상

# 땅콩콜라



기름진 음식에 콜라를 곁들이는 건 익숙하다. 그런데 여기에 땅콩까지 넣는다면 어떨까. “왜 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땅콩콜라는 의외로 꽤 오래 사랑받아 온 ‘단짠’ 조합이다.

땅콩콜라는 1920년대 미국 남부에서 즐겨 마시던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농업 종사자들이 즐겨 마셨다고 해서 ‘파머스 코크(Farmer’s Coke)’라는 이름도 붙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더 스크랩』에도 등장할 정도다.

방법은 소금 땅콩 한 봉지를 콜라병에 그대로 넣어 마시면 끝. 보기엔 단순하지만, 맛은 ‘기대 이상’이라는 후기다. 짹짹한 땅콩이 콜라의 달콤함을 더 진하게 끌어올리고, 탄산 사이로 씹히는 바삭한 식감이 재미를 만든다. 특히 유리병 콜라로 마시면 특유의 청량감이 한층 살아난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은근히 계속 찾게 된다고.

## 상상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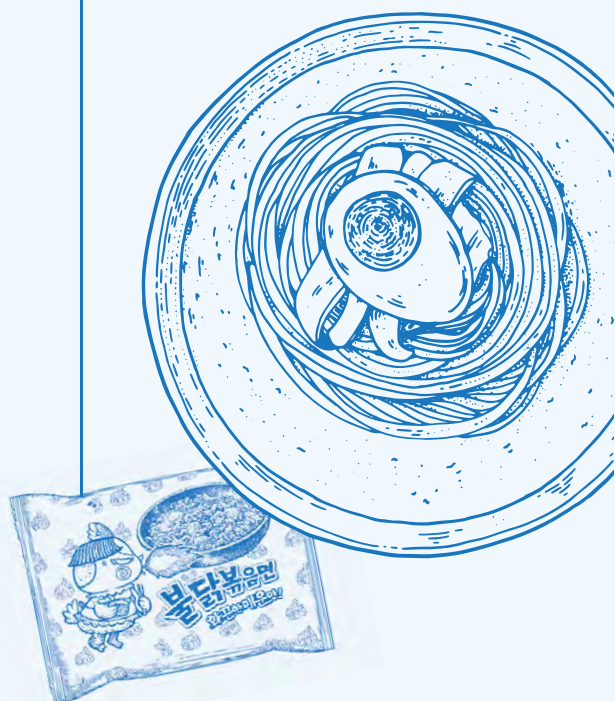
## 더한

차갑고 맵고 시원하다

# 육회불닭냉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이 의외의 맛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 육회불닭냉면은 그런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메뉴다. 매콤한 불닭볶음면에 시원한 냉면육수를 붓고, 그 위에 신선한 육회를 듬뿍 올린 음식으로 차갑고, 맵고, 시원한 맛이 한 그릇 안에 담겨 있다.

육회불닭냉면은 청양고추처럼 화끈한 매운맛에 육회의 고소한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예상 밖의 풍미를 만든다. 여기에 살얼음이 동동 뜬 냉면육수는 입안을 시원하게 정리해 준다. 쫄깃한 면발과 부드러운 육회의 식감 대비도 이 메뉴의 매력 포인트다. 씹을수록 매운맛, 감칠맛, 시원함이 번갈아 느껴지며 묘한 중독성을 남긴다. 취향에 따라 참기름이나 노른자를 추가하면 맛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해진다. 익숙한 재료들이 상상력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메뉴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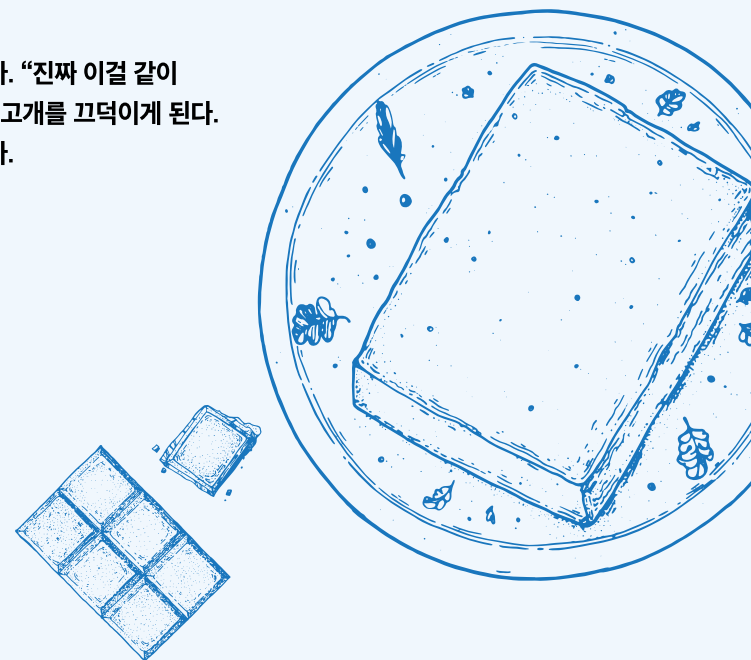


이제껏 상상하기 어려웠던 음식 조합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진짜 이걸 같이 먹는다고?” 싶은 메뉴들. 하지만 막상 한입 먹어보면 조화로운 맛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익숙한 재료에 기발한 상상력을 더해 탄생한 이색 요리들을 소개한다.

초콜릿 맛이 나는 두부라니. 얼핏 들으면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조합이다. 하지만 막상 한입 먹어보면 의외로 조화롭고 꽤 근사하다. 초콜릿두부는 두부의 부드러운 질감과 초콜릿의 달콤함을 결합한 디저트다. 건강한 재료와 달콤한 디저트 사이 어딘가를 절묘하게 오가는 메뉴라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생크림 대신 두부를 넣어 초콜릿과 함께 곱게 갈아내면 된다. 두부 특유의 담백함이 초콜릿의 진한 단맛을 부드럽게 받쳐주면서, 마치 초코 무스 같은 느낌을 만든다. 맛을 좌우하는 핵심은 두부의 물기 제거다. 물기를 충분히 빼야 맛이 진해지고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여기에 코코아파우더나 바나나, 견과류를 더하면 풍미가 한층 깊어진다. 냉장고에 두부 한 모와 초콜릿이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다.

## 이색 요리



달콤함 속에 숨은 반전

# 초콜릿두부

# 내일을 설계하는



성장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하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거창한 성공보다도 스스로를 믿게 되는 순간에 가까워지도 모른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Vision은 무엇일까? 저마다 품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응답자 수 104명

## 'Vision'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8.7%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먼저 도전하는 것



11.5%

우주여행처럼 미래에나  
가능할 듯한 SF 영화  
같은 장면



66.3%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



7.7%

운동, 자격증 취득 등  
꾸준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



5.8%

기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일 등)

## 내가 그리는 10년 뒤 미래 모습은?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 혹은 기술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AI가 집안일을 척척 해결해 주는 스마트홈 라이프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며 우주를 함께 탐험하는 미래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자동차가 일상이 된 세상

홀로그램으로 생생하게 배우는 업무 교육 시대

이동시간과 대기시간까지 알차게 활용하는 세상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초편리한 세상

의학 발전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 10년 뒤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로봇과 AI를 똑똑하게 활용해 더 안전한 물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현장의 경험 데이터를 쌓아 미래형 정수장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경북지역협력단 최정진

AI 덕분에 생긴 시간을 나만의 긍정 루틴으로 채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활기찬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부산권지사 김준민

아프리카 곳곳에 우물을 만들어 물이 부족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전공을 살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자원개발처 서동익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LP판과 필름카메라 같은 아날로그 감성을 즐길 줄 아는 낭만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 전경진

## 내가 원하는 미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것은?

40.4% 새로운 역량이나 기술을 배워 경쟁력 높이기

6.7% 새로운 사람들과 협업·네트워킹하며 기회 넓히기

23.1% 오운완·미라클모닝 등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 루틴 만들기

12.5% 아직 나에게 맞는 목표를 찾는 중

12.5%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일단 하나씩 실행해보기

4.8% 기타(지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중 등)

##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내 모습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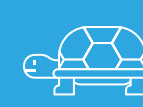
14.4%

치타  
목표가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한다



17.3%

독수리  
멀리 보고 큰 그림  
부터 그린다



42.3%

거북이  
느려도 꾸준히  
끝까지 간다



5.8%

펭귄  
혼자보다 팀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낸다



13.5%

여우  
상황에 따라 유연하  
게 전략을 바꾼다



6.7%

기타  
(소: 힘들어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 등)

##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장 얻고 싶은 것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얻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발판 삼아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원동력을 얻고 싶습니다.

대산산업용수관리단 고광덕

도파민이요. 결국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나를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차) 박창훈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작은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자신을 더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아끼며 꾸준히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주권지사 김정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마음이에요. 조금함보다 여유를, 불안함보다 평온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채워가는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전주권지사 손용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따뜻한 일상입니다. 멋진 집에서 가족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하루의 끝을 편안한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평범한 순간들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도수도지사 김태욱

이제는 나 자신을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막막했던 순간들을 경험으로 이겨내고, 그 과정 속에서 한층 단단해진 사람으로 성장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화조력관리단 임수원

# 목표를 향한 과정까지 행복할 것

목표라는 단어를 들으면 숨부터 막히곤 했다. 매일 힘차게 달려야만 할 것 같았고, 시작부터 누군가 쫓아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손을 짝 쥐듯 애를 쓴 덕에 며칠은 계획한 만큼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 뛰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오랫동안 버틸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됐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그리고 금방 포기하고 마는 나를 오랜 시간 미워하며 살았다.

완벽주의는 이 레이스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조금만 계획에서 어긋나거나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0'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부추겼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분명 변화가 있었음에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다 무너뜨리고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곤 했다. 매일 1을 해내야만 하는 사람에게 0.3의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변화를 만드는 것임에도 말이다. 그렇게 쌓아 올린 시간은 모두 손아귀에 쥘 모래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갔다.

매번 넘어지기만 하던 내 마음에 문득 질문을 던졌다. “나를 채찍질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 진정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는가? 쥐었다고 할지언정 목표로 향하는 과정까지 행복했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는 나를 괴롭히며 달려가고 있는가.

목표라는 건 결국 행복하게 살자고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노력하는 모든 순간이 힘들고 버겁기만 하다면, 때면 포기하고 다시 쌓기를 반복할 거라면 나는 왜 이렇게 목표만을 바라보며 완벽주의에 갇혀 있는 걸까. 사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 참 쉬운 인생이다. 하루하루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서 그저 즐겁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나는 왜 애써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가.

내가 목표를 세우는 '본질'과 '이유'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결국 '더 나은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나왔다. 지금껏 나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차나의 성취를 위해,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자기비난과 좌절감으로 채우고 있었다.

인생의 대부분은 과정 속에 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소요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과정' 안에 있고, 그 과정이 곧 내 시간이자 삶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로 향하는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과정까지 행복해야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나를 채찍질하던 방식을 그만두고, 나의 마음을 존중하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조금함을 걷어내고 속도를 늦췄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도 원하는 걸 빠르게 손에 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컨디션과 하루하루의 리듬을 존중했고, 어떤 일이든 더 재미있게 할 방법도 찾았다. 어떤 날은 1을, 어떤 날은 0.3을 해도 괜찮았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떤 날은 2를 해내는 날도 생기니까.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목표는 세우지 않는다.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 역시 나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또 미루지 않고 할 일을 미리 해낸다. 만나지 않아도 될 불안에 나를 잠식시키지 않는다. 때때로 휴식을 선사하기도 했다. 쉬지 못해 덜거덕거리는 나사를 조이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달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새롭게 만든 내면의 규칙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채찍질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열심히 걸어가는 나를 이해하고 돌봐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나아가기에 계속 걸을 수 있었다. 이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곧 꾸준함의 실제 모습이다.



나는 한때 꾸준함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꾸준함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꾸준할 수 있다. 매일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똑같은 양을 해내지 않아도, 또 어떤 날은 그냥 쉬어가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목표로 향하는 과정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그게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임을 알면 완벽주의는 더 이상 나아가는 발걸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한 사람에게 있어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곧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이루는 과정 역시 행복해도 된다. 과정도 얼마든지 재미어도 된다. '과정 역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고민해 보자. 그러면 걸림돌 없이 꾸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그렸던 목표에 힘들지 않게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토록 재능이 많은 배우가 있었을까. 빈틈없는 연기로 시작해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알린 하정우는 꾸준히 연출작을 내놓으며 또 다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뿐만이 아니다. 작가 하정우는 어느덧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열며 연기하는 미술가로 이름을 알렸고, 취미인 걷기 운동에 관한 글로 출판계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한 와인 애호가로서 ‘하정우 와인’을 출시하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그야말로 모든 축이 고르게 발달한 육각형 인간임에 틀림없다.

## 연기 안에서도 연기 밖에서도 빛나는 이름

배우 하정우

### 멈추지 않는 하정우의 세계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대중의 관심 속에서 늘 평가받는 연예계라면 더 그렇다. 보는 눈이 많아 조심스럽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본업인 연기에서 호평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삶. 배우 하정우는 2003년 데뷔 이후 공백기가 없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찾고, 연출에 도전했으며, 쉬는 날이면 한강에 나가 뛰었다. 그런 그에게 “대체 언제 쉬냐”, “힘들지 않냐”라는 말을 종종 묻곤 했지만, 늘 대답은 한결같았다.

“인생은 다 소진되잖아요. 정말 무리가 된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 패턴 안에서 충분히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웃음) 너무 많은 것에 도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요.(웃음)”

또한 ‘하정우 감독’으로서의 활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2013년 영화 <롤러코스터>를 시작으로 <허삼관>, <로비>에 이어 지난해 <윗집 사람들>을 통해 네 번째 연출작을 내놨다. 특히 연출작에선 특유의 위트와 자극적인 소재를 녹여내 ‘하정우표 영화’라는 뚜렷한 컬러가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심 없는 작품 활동에 배우 아닌 감독 하정우의 속내도 궁금했다.

“연출작을 계속 선보이면서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자’라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뭘 그렇게 많이 보여주려고 조급했나. 그동안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 걸 정리하니 더 집중력과 밀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영화를 만들까 늘 고민이 됐어요. 또 하나, 어쭙잖게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좋은 시나리오를 찾는 게 승률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열심히 할 거예요.”





영화 <로비> 스틸컷

**▶ 지난해 2007년 이후 15년 만에 TV 드라마를 했고, 연출작과 출연작 등 영화에선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배우 하정우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관객들이 결국 영화관을 찾아가서 영화를 보는 건 재미있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나리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말을 맺어 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만드는 사람의 그릇이에요. 작품을 담아낼 그릇을 가진 제작진이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때문에 대본이 아무리 좋아도 제작진의 그릇이 작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죠. 반면, 시나리오는 좀 부족해도 사람이 훌륭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사람, 또 사람인 것 같아요.

**▶ 화가 하정우로서의 활동도 활발해요. 이제는 특유의 화풍까지 생기면서 어떤 그림을 선보일지 기대하게 되는데요.**

시작은 소박했어요. 촬영장에 있으면 대기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촬영장에 있는 재료, 예를 들어 나무판자, 종이 등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웠고, 몰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죠.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다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자유로움'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유롭게 연기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뭘까' 고민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조심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때문에 '작가 하정우'일 때 '온전한 나'를 느끼게 되죠.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왜 그리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 올해 배우 차정원과의 결혼설로 인터넷이 뜨거웠어요.**

열애는 맞아요. 하지만, 한 마디로 아버지가 낫이셨죠. 어떤 기자가 연락이 와서 "아버님 이번에 결혼하신다니면서요"라는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아버지는 "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어요. 회사에 확인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발표가 됐어요. 잘 만나고 있고, 언제나 서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 최근에는 CF에서도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독과 배우를 동시에 맡는 경우도 있는데, 감독 하정우로서의 고민도 클 것 같아요.**

영화감독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일회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기와 연출 둘 다 너무 좋아하고,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연출작에 출연까지 함께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해요. 그래서 출연을 꺼리기도 하고, 캐스팅 난항으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후한가, 너무 과한가, 너무 몰아세우나' 이런 복잡하고도 미묘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불안정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감독으로서 배우 하정우를 운용할 때 더 차가워지고 노력하는데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우로서 캐릭터를 고민하면 '이게 정답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죠. 늘 정해지지 않은 불안감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윗집 사람들> 스틸컷



**▶ 가수 선에 이어 '연예계 달리기 전도사'로도 유명해요. 출발은 걷기였다고요?**

원래 걷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에세이도 출간했었고요.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의 루틴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영감을 받은 부분도 있고, 나를 확인받는 부분도 분명 있었어요. 그러다 달리기를 하니 쾌감이 더 배가 됐죠. 그리고 제가 영화 <1947 보스턴>에서 손기정 역을 맡기도 했고요. 마라톤을 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선두 그룹에 있다가 넘어지거나 낙심할 때도 있고, 위기도 찾아오고, 그러다 잘 달리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걸으면서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뭔가 여유를 찾는 순간도 찾아오고요. 요즘도 매일 걷고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건강함이 지금의 활동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힘차게 달리고 난 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역시 시원한 물이죠.(웃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이라고 생각해요. 늘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 커피차가 간다

글. 최행좌 사진. 황지현 영상. 이덕재

# 물관리는 풀가동, 웃음은 풀충전 충남중부권지사



## 충남의 물길을 지키는 히어로들 충남중부권지사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친수사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해내는 물 전문가들.  
각자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함께할 때는 누구보다 끈끈하게 움직이는 충남중부권지사다.  
커피차가 이들에게 달콤한 커피와 웃음을 선물하러 찾아갔다.



### 빈틈없이 움직이는 복합사업장

충남과 호남의 물길을 지키는 곳이 있다. 바로 충남중부권지사다.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는 물론 친수사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곳은 말 그대로 복합사업장이다. 그래서 인지 직원들의 하루도 무척 다채롭다. 누군가는 정수장을 운영하고, 누군가는 고객 민원을 확인하고, 또 누군가는 현장 곳곳을 오가며 물길을 살핀다.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100여 명의 직원들은 부여, 공주, 논산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관리부는 광역상수도 운영과 고객관리, 부여 구암 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운영부는 부여 석성정수장을 중심으로 깨끗한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부서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수열에너지를 통해 정수장 에너지 최적화에도 힘쓰고 있다. 공주수도운영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가압식 막여과 정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상징적인 현장이다. 논산수도센터 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내 지방상수도 위수탁 1호 사업장으로, 대한민국 물관리의 새로운 길을 연 곳이다. 오주익 지사장은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늘 소통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직원들이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일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지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자랑했다.



### 시민들의 하루를 지키는 물 전문가들

성실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잘해냈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충남중부권지사 직원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유독 많다.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노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상수도 평가에서 논산시 지방상수도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금강광역·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가 포함된 충청권 지역 광역상수도 역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비결은 ‘고객 중심 경영’에 있었다. SI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논산시 수도물의 명소인 휴게수 리모델링, 어르신 대상 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수도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지방상수도 민원 데이터를 SI가 분석하고 만족도를 측정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누수 관리 역시 이들의 중요한 업무다. 시민들이 수도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하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한다. 작은 민원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조형식 사원은 “누수 지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나면 정말 뿌듯하죠”라며 웃었다.

충남중부권지사 논산수도센터는 33개소 소규모 유량계를 통해 스마트 관망관리(SWM)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집중 누수 탐사 구간을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85% 이상의 높은 유수율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최수진 센터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 오늘은 에너지 충전하는 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깐의 휴식은 큰 힘이 된다. 특히 서로 의지하며 일하는 충남중부권지사 직원들에게는 더 그렇다. 최형규 사원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동료애를 자랑하고 싶어 커피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홍수기가 다가오면 다들 정신없이 바빠져요.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거든요.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에 커피 한 잔하면서 잠시 쉬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날의 간식은 휘낭시에. 커피와 함께 먹으면 피로까지 사르르 녹아내릴 만큼 달콤한 디저트다. 커피차가 도착하자 직원들의 얼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미소가 번졌다.

박지우 사원은 “맛있는 커피와 간식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기분이 좋아요”라며 웃었고, 이수열 차장은 “요즘 정말 바빴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동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다. 손원해 팀장 역시 “커피차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만들 것 같아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커피 한 잔에는 달콤함 이상의 힘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내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응원 같은 시간이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충남중부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 Mini-Interview



#### 최형규 사원

논산수도센터는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동료애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부서를 자랑하고 싶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 오주익 지사장

드넓은 충남 중부 지역을 관할하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늘 애쓰는 직원들이 오늘날만큼은 웃고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 이영실 차장

바쁜 업무를 하다 보면 같은 부서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서로 웃고 응원하면서 다시 힘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 AI 혁신이 이끄는 새로운 경제와 물관리

AI의 성장은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하지만 AI가 발전할수록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다. 바로 물 사용량이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확산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물관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 AI가 커질수록 물도 더 많이 필요해진다

“AI 시대가 오면 우리 일상이 훨씬 편리해진다.”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다. 실제로 생성형 AI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다. 바로 AI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AI 산업은 단순히 컴퓨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식혀야 하고, 고성능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은 이를 ‘AI 물 발자국’이라고 표현했다. 데이터센터 냉각수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의 냉각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특히 AI 산업이 커질수록 물 사용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AI 물 수요는 2050년 연간 540억m<sup>3</su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지표수 용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AI 시설들이 물이 풍부한 지역보다 전력과 통신망 중심으로 입지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물이 얼마나 있는가’보다 ‘전기가 잘 들어오고 인터넷이 빠르다’를 먼저 본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가뭄 위험이 큰 지역에도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34% 이상은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AI가 발전할수록 물 부족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후채찍(Climate Whiplash)’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물관리 역시 과거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셈이다.

결국 AI 시대에는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물과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이제 물관리도 '스마트'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AI 산업 성장으로 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물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댐이나 대규모 정수장 같은 '큰 인프라'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한 번 지으면 바꾸기 어려운 고정형 인프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물전문 분석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는 '유연성, 민첩성, 가용성, 신뢰성'을 미래 물산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먼저 '유연성'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이동형·모듈형 수처리 시스템처럼 필요한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대표적이다.

'민첩성'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물 문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미터기와 센서를 통해 누수를 바로 찾고, 관망 운영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AI 기반 물관리는 누수 탐지와 공급 효율화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아마존은 멕시코에서 AI 기반 누수 탐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연간 130만m<sup>3</sup>의 물을 절감하고 있다.

'가용성'도 중요한 키워드다. 가뭄이 심해져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나 물 재이용 같은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물 재이용 인프라를 구축해 연간 420만m<sup>3</sup> 규모의 물 재이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은 '신뢰성'이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 물은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물 공급 상황과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미래 물관리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고 똑똑하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쉽게 말해 앞으로의 물관리는 '많이 만드는 시대'에서 '똑똑하게 관리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 물을 많이 쓰는 AI, 물문제 해결사도 될 수 있다

AI는 분명 많은 물을 사용한다. 생성형 AI를 30분 사용할 경우 생수병 한 병이 넘는 물이 사용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쯤 되면 "AI는 물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AI가 오히려 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은 AI 기반 물관리 솔루션이 누수 저감, 물 공급 최적화, 홍수·가뭄 대응 등에서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어디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가뭄 위험이 높은지', '언제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

### 빅테크 기업 투자 사례



#### 아마존(Amazon)의 멕시코 누수저감 프로젝트

- AI 기술 기반 멕시코 시티 등 상수관망 누수 탐지로 연간 130만m<sup>3</sup> 누수 절감
- 자사의 데이터센터 물 공급 효율화 및 지역 물 안보 제고 기여 효과



#### 인텔(Intel)의 애리조나 물 재이용 투자

- 지자체(첸들러시)와 협약을 통해 하폐수 재이용 인프라 구축 투자
- 연간 420만m<sup>3</sup> 물 재이용으로 파운드리 제조시설 물 공급 등 워터 포지티브 실현

### 글로벌 물 투자 분야



#### 유연성(Flexibility)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듈형 수처리 시스템 등



#### 민첩성(Agility)

스마트 미터링, 센싱 등을 통해 누수를 실시간으로 탐색하여 관망 운영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시스템 등



#### 가용성(Availability)

가뭄 위험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해수담수화, 물재이용 등)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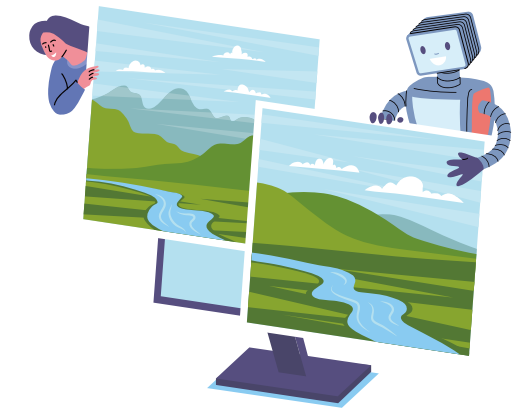
#### 신뢰성(Credibility)

안정적 물 공급 및 고객 기대 수준 수처리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첨단 모니터링 기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AI가 문제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 방향까지 제시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글로벌 물산업의 중심은 전통적인 토목·인프라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물산업도 이제는 단순한 시설 산업이 아니라 AI·데이터·센서 기술이 결합된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똑똑하게 활용하느냐다. AI는 물을 많이 쓰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AI 시대의 물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 Water&Tech INSIGHT 카카오톡 채널 안내

K-water연구원에서 발간되는 'Water&Tech INSIGHT'를 편하게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K-water연구원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됩니다.

# 희망을 말하고, 변화를 일으킬 29개의 신선한 바람 2026년 직원이사회 타운홀 미팅



조직문화의 변화는 거창한 혁신보다 진솔한 대화에서 시작된다. 지난 4월 20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과 직원이사회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29명의 직원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직의 미래와 더 나은 문화를 함께 이야기했다.



## 직원이사회가 만든 소통의 무대

'29개의 신선한 바람, 바람(Hope)을 바람(Wind)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29명의 직원이사들이 조직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4월 20일 열린 'CEO와 직원이사회의 타운홀 미팅'은 세대와 직급을 넘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조직문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바람'이라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29명의 직원이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동시에 조직을 움직이는 새로운 'Wind(바람)' 동력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윤석대 사장은 29명의 직원이사들과 한 명씩 직접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다. 격식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에 초점을 맞춘 만큼 현장은 시작부터 부드럽고 활기찬 분위기로 채워졌다. 이날 대화는 '29개', '신선한', 'Wind'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직원이사들은 윤석대 사장에게 최근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해외 활동과 관련해 해외에서 바라보는 공사의 이미지와 조직문화 개선 방향, 직원이사회에 기대하는 역할 등에 대해 질문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한 대화의 시간

윤석대 사장은 최근 젊은 직원들의 관심사와 조직에 기대하는 가치,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 등을 묻는 등 직원이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직원이사회 활동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직원이사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회사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조직문화는 회사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10년 후 미래의 회사를 생각하며 최고의 기업에 걸맞은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직원이사들이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조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한 시간이었다. 29명의 직원이사들이 만들어갈 '신선한 바람'이 앞으로 조직문화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01

## 국내 첫 글로벌 RE100 인증

지난 5월 7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RE100 인증 주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RE100 달성을 최종 인증받았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인증 검증을 신청한 이후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내 36개 가업 기업 중 최초 달성이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물 에너지 인프라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기준 국내 1위인 공사는 약 74%를 차지하는 수력을 비롯해 태양광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공사는 구내 전력 소비량인 1,747GWh보다 많은 1,833GWh의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했다. 이는 가정용 기준 약 64만 가구의 전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며, 외부 전력 의존을 줄이고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사용 전력 100%를 충당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구체화했다.

이번 인증은 국내 산업계의 RE100 이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GW로 확대하고,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 02

## OpenAI와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5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는 ChatGPT 개발사인 OpenAI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OpenAI가 전 세계 기후테크 기업과 최초로 추진하는 협력 사례로, 이미 공사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물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AI 기술을 더해 물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물관리 운영 경험과 OpenAI의 첨단 AI 기술을 결합해,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자 AI 기반 모델인 ‘독파모(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를 적극 활용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국내 물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OpenAI가 추진하는 국가 단위 AI 프로젝트와 협력해 한국형 AI 물관리 기술의 해외 확산을 앞당길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해 물관리 분야 AI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협력, 공사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활용방안 모색,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과 물관리 발전을 위한 물특화 AI 공동연구, 기후·워터테크 사업화 및 글로벌 동반 진출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03 삼성E&A와 ‘글로벌 선도기술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5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삼성E&A는 ‘글로벌 선도기술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첨단 물 기술과 삼성E&A의 글로벌 사업 수행 역량을 결합해 해외 물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국내 물 기술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E&A는 글로벌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및 에너지 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48개 국가, 1,6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폐수 처리와 초순수 생산시설 등 수처리 분야에서도 설계·시공 역량을 축적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 관련 사업 개발 및 정보 공유, 해외 물 사업 개발을 위한 기회 발굴, 사업화, 공동 운영, 국내 수처리 및 재이용 사업 개발과 공동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의 신규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술 적용 가능성과 재무적 타당성, 국가별 위험요인 등을 공동 검토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04 장강수리위원회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 개최



지난 5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는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어온 양 기관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장강수리위원회는 중국 최장 하천인 장강(양쯔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 홍수·가뭄 대응 등을 담당하는 통합물관리 기관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년간 수자원 정책,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등 물관리 분야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왔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마수이산(Ma Shuishan)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전환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교류회에서는 ‘시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수자원 정보 분석 및 물배분 기술, 댐 인프라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운영, 글로벌 수자원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 05 베트남 국가수자원기획 조사센터와 고위급 면담 및 R&D 협력포럼 개최



지난 5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에서 베트남 국가수자원기획조사센터(NAWAPI)와 고위급 면담 및 R&D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하노이 도시홍수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양국 장관이 확인한 물 분야 상호 협력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트윈, AI 정수장 등 첨단 물관리 기술 도입과 공동 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에 뜻을 모았다.

베트남 방문단은 면담에 앞서 K-water연구원이 개최한 ‘R&D 협력포럼’에 참여해 하노이 도시홍수 저감 등 물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편 베트남 방문단은 부산 낙동강 하굿둑과 스마트 정수장도 시찰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물기업의 베트남 시장 동반 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06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최초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27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우수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성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현장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한 성과다.

이번 평가는 전체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와 협력 생태계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창업부터 실증, 기술개발, 판로개척까지 연계 지원하는 ‘4STEP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장 지원을 이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민관협력 기반 오픈이노베이션과 AI·디지털 기술 실증 지원, 협력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진흙 속에서 피어난 고귀한 꽃들의 정원 세미원



청렴한 선비에 비유할 정도로 단정하고 말간 얼굴, 들여다보면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렸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물을 정화하는 연꽃과 수련. 여름빛을 받아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을 꽃피운 수생식물의 천국, 양평 세미원이다.



**물과 꽃이 준 '정화'라는 선물**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줄기가 만나고, 팔당호가 감싸 안은 곳에 위치한 꽃들의 정원. 양평 세미원은 물과 꽃이 빛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한다. 이곳을 모두 둘러보고 나설 때면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의미를 담은 '세미원'의 이름이 꼭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은 꽃과 물로 가득한 이 정원이 과거 상습 수해 지역이자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로 수질 오염 문제가 있었던 곳이라는 점이다. 이때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은 해결 방안은 바로 '수생식물'이었다. 수질 정화 기능을 하는 수생식물들로 자연정화공원으로 바꾸자는 목표는 긴 공사 끝에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탄생했다. 덕분에 지금 세미원의 연못은 맑고 깨끗한 물빛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편안한 풍경을 선물하고 있다.



\*관수세심 관화미심(觀水洗心 觀花美心):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

**역사의 다리는 이야기를 잇고**

세미원이 사랑받는 건 정원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원을 둘러싼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세미원에 입장해 남동쪽 강가 끝으로 내려가면 나타나는 배다리는 그 역사를 알고 건너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작은 배 44척을 일렬로 연결하고, 그 위에 상판을 얹어 만든 이 독특한 다리는 다산 정약용이 조선 22대 왕인 정조를 위해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당시 정조는 뒤주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긴 후 매년 봄마다 대규모 행차를 했는데, 한강을 건널 때마다 수많은 배를 동원하는 등 너무나 큰 수고와 비용이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약용은 배 여러 척을 이어 만든 '배다리'를 고안했다. 현재 세미원에 있는 배다리는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그 시절, 이곳을 지나던 정조를 떠올리며 천천히 다리를 건너다 보면 양평의 또 다른 명소인 '두물머리'에 닿게 된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

세미원은 전체 면적이 약 20만 7천㎡(약 6만 2천 평)에 달하는 거대한 정원이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짧고 간단하다.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 정문으로 들어서 관람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태극 문양의 문, '불이문(不二門)'은 바로 그 뜻을 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련으로 알려진 빅토리아 수련이 있는 연못과 선조들이 풍류를 즐기던 전통 정원시설을 재현한 유상곡수, 연꽃박물관, 세심로 등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자연이 살아 숨신다. 이 중에서 세미원의 가장 큰 자랑은 역시 연못과 연꽃 정원이다. 하얀 연꽃이 수려한 백련지, 은은한 분홍빛이 우아한 흥련지는 한 폭의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꿈같은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특히 연꽃의 개화는 보통 7월 초순부터 8월 하순까지여서 바로 지금부터가 세미원의 연꽃을 보기에 가장 제격인 때다. 연꽃은 새벽부터 피기 시작해 오전에 가장 활짝 열리고, 오후가 되면 꽃잎을 다시 오므리는 특징이 있으니 오전에 방문하면 더욱 좋다. 또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 페리 슬로컴(Perry D.Slocum) 박사의 이름을 딴 페리기념연못, '수련'하면 떠오르는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가득한 정원'을 재현한 '사랑의 연못'도 있다. 날씨, 계절, 빛에 따라 달라지는 연못의 수련을 담아내기 위해 죽기 전까지 30여 년을 수련과 연못의 빛을 담아낸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라면 더 반가울 것이다. 이외에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를 정원으로 재현한 '세한정', 조선시대 온실을 재현한 '상춘원', 세계 유일의 연꽃 테마 박물관, 장독대로 만든 장독대분수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다 보면 이른 더위도 잊은 채 수많은 인증샷을 남기게 될 것이다.



**세미원**

- A**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 T** 09:00 ~ 18:00
- F** 일반 7,000원, 어린이/경로 4,000원
- T** 031-775-1835

# ‘물멍’ 골든타임 6월,

## 지금 떠나야 하는 이유



이세흠  
KBS 기자

바야흐로 ‘멍’의 시대입니다. 현대인에게 휴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불멍, 숲멍, 심지어는 비행기 향로를 바라보는 ‘비행기멍’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예술가의 참여형 퍼포먼스로 시작했던 ‘멍 때리기 대회’는 스케일을 점점 키워 해외로 수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선호하는 건 ‘물멍’입니다. 불을 피울 필요 없이, 근처 물가를 찾아 햇살 아래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물가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여름 비가 흠탕물을 일으키기 전, 일 년 중 물빛이 가장 투명한 6월에 우리가 물멍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 뇌를 새로고침하는 효과, ‘블루 마인드’

현대인의 뇌는 늘 ‘레드 마인드(Red Mind)’ 상태입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휴일에도 체크해야 하는 뽐뽐한 업무 일정, 집에서도 처리해야 할 잡무들은 우리 뇌를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이유, 머릿속 한 칸에선 여전히 정보를 처리하느라 열일 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월러스 니콜스 교수는 본인의 저서 『블루 마인드(Blue Mind)』에서 이 같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멍’을 제시합니다. 물 근처에 있을 때 우리 뇌가 이완되고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이론에 따르면, 우선 해변가나 수변 환경이 코르티솔과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또, 강이나 바다의 물결은 직선적인 1차원이나 평면의 2차원이 아니라, 그 중간 영역인 소수점 차원의 프랙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이 같은 1.3~1.5 정도의 프랙털 차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겼다가 사라지길 반복하는 파도와 물결의 프랙털적 리듬, 그것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듯 하면서도 미세하게 변하는 백색 소음. 우리 뇌는 이를 ‘예측 가능한 안전한 자극’으로 받아들여,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멍은 뇌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고침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 6월, 일 년 중 가장 투명한 물결을 만나는 골든타임

그렇다면 왜 하필 6월일까요? 여기에는 계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는 ‘투명도’입니다. 6월 말부터 8월까지 본격적인 장마와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상류에서 유입된 흙탕물과 부유물로 인해 강과 호수는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 전까지는 큰 비가 오기 전이라, 일 년 중 물이 가장 맑고 투명합니다. 유량이나 저수량이 적지도 않죠. 해가 조금씩 넘어가는 시간에 물가를 찾았다면 햇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며 반짝이는 윤슬도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짙어지는 녹음’입니다. 6월은 갓 돌아난 신록이 점차 짙어지는 달입니다. 파란색의 수면 위로 수변의 짙은 초록색이 반사되는 풍경은 시각적 청량함을 극대화합니다. 또, 무더위로 인한 녹조가 본격화되기 전이라,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수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초여름의 적당한 습도는 물소리를 더욱 가깝고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 정서적 인프라로서의 댐과 호수

유럽은 10여 년 전부터 녹지와 수변 공간을 통합한 블루-그린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물 기반 공간’을 의미하는 ‘블루 스페이스(Blue Space)’ 개념을 도시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댐과 호수는 이미 단순한 산업 시설을 넘어 시민들에게 정서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소양강댐의 개방감을 느끼거나, 대청호 주변의 산책로를 조용히 걷다 보면, 일상의 번잡함은 물 밑으로 가라앉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성이 채워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물멍을 하러 갔다가 강바닥만 보고 오지 않으려면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목적댐’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홍수조절용댐’은 평소엔 물을 흘려보내며 비워두었다가 홍수 조절 시에만 물을 가둬 댐 안의 물이 차오르기 때문이죠. 얼마 전 취재차 찾았던 연천 한탄강댐은 강바닥이 흰히 드러나 홍수기 대비 물그릇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이번 주말, 눈앞에 기분 좋은 푸른 물결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 사랑을 꿈꾼 물의 정령 운디네



깊은 호수 아래에는 인간 세상을 동경한 물의 정령이 살고 있었다. 사랑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배우고 싶었던 존재, 운디네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디네 이야기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변주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닮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인간의 세계를 동경한 운디네

깊고 푸른 호수 아래, 아무도 모르게 물결 사이를 유영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물의 정령 ‘운디네(Undine)’다. 운디네는 유럽 전설 속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맑은 샘물이나 강, 호수에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드 라 모테 푸케의 소설 『운디네』는 이런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으로 유명하다.

“인간들은 왜 저렇게 웃고 울까?” 운디네는 늘 인간 세상이 궁금했다. 전설 속 운디네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긴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흘러내리고, 맑은 눈동자는 호수처럼 투명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이다.

운디네 같은 정령은 자연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처럼 웃고, 울고,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래서 운디네는 인간 세계를 늘 동경했다. 누군가를 좋아해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 함께 웃고 슬퍼하는 순간들이 궁금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설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운디네가 인간과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운디네는 한 인간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물속 세상만 알던 그녀에게 인간 세계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감촉, 함께 웃는 순간, 사랑 때문에 설레는 마음까지. “이게 사랑이라는 걸까?” 운디네는 점점 인간처럼 감정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을 통해 비로소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운디네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에서 인간 남자는 결국 운디네와의 약속을 잊고 다른 사랑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순간, 운디네의 사랑은 슬픔으로 변한다.

## 『인어공주』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

운디네는 오래된 전설 속 존재이지만 지금도 다양한 영화와 음악, 예술 작품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쉬고 있다. 특히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 역시 운디네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운디네 이야기에 빠져든다. 그 이유는 운디네의 감정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도 닮아서가 아닐까.

최근에는 독일 영화 <운디네>를 통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도 했다.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운디네 전설을 재해석한 영화인데, 사랑과 이별, 불안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 많은 공감을 얻었다.

흥미로운 점은 운디네가 ‘예쁜 물의 요정’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랑이 변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 상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외로움 같은 감정도 함께 상징한다. 그래서 운디네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마치 잔잔한 물속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든다. 처음에는 맑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깊고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운디네는 물의 정령이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고, 상처받기도 하는 마음 말이다. 그래서 수백 년 전 만들어진 전설이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처럼 남아 있는 게 아닐까.

#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시장이 못 풀때, 공기업이 해야합니다

유튜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 안보 시대 국산  
에너지의 가능성은?

#조력발전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블로그

용담댐 홍수터를  
생명의 서식지로  
'네이처 포지티브' 실천



#용담댐 #네이처 포지티브  
#생태복원 #수변생태계



X(트위터)

선제적 녹조관리 강화  
물순환설비 가동



#녹조관리 #녹조 계절관리제  
#기후변화 #물관리



페이스북

여름을 위한 준비 시작  
에어컨 청소 가이드



#에어컨청소 #여름준비  
#생활꿀팁 #필터청소



인스타그램

오늘 나의 컨디션은?  
막힘 없음 VS 막힘 있음



#막힘 없음 #막힘 있음  
#컨디션 최상 #회복루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 6월호 이벤트 안내

## EVENT 1



##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6월호 사보 또는 웹진, 블로그를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이벤트 경품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 접수 마감일 6월 20일
- 선물 발송일 6월 30일



참여하기

## EVENT 2



## 챗GPT를 30분 사용하면 생수병 한 병이 사용된다. 과연 사실일까?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 약 10~50개의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약 500ml 정도의 물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데, 과연 사실일까?

힌트. 44p Water & Tech 본문 참고

- STEP 1 블로그 방문하기
- STEP 2 이벤트 게시물에 비밀 댓글로 참여하기
- STEP 3 정답, 이름, 휴대폰번호 작성하면 참여 완료!
- 이벤트 경품 투썸플레이스 베이글+커피 세트
- 접수 마감일 6월 25일
- 선물 발송일 6월 30일



블로그 바로가기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5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강○수(6701)

단순한 천문학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주와 은하의 크기를 생각하면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작지 않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 류○욱(2179)

AI 기반 물관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K-water의 소식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물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화(1273)

김정호 수의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과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 이○현(5455)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아 요리 관련 영화도 자주 보고, 영화 속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이번 시루떡 이야기를 읽으며 어린 시절 이사 후 이웃들에게 시루떡을 돌리던 엄마 심부름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 이○영(5777)

청주는 엄마의 고향인데,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연스럽게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찡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모님과 함께 청주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졌습니다.

## 이벤트 당첨자 발표 # YES or NO 이벤트

###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트콘 10명

**깨끗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일까? 정답은 YES!**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는 미네랄 등 이온이 녹아 있어 전기가 통한다. 하지만 초순수 같은 깨끗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김○아(2129)	박○규(9482)	안○준(0147)	정○향(0502)
김○자(1102)	박○철(9600)	오○진(6965)	
김○나(1375)	손○희(2224)	유○렬(6454)	

##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 이벤트 경품 카드지갑 5명

강○성(8936)
강○정(6153)
이○연(3937)
이○영(9106)
전○정(7400)

※ 6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 방울이 옷 입히기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6월 20일  
선물 발송 6월 30일

응모하기

경품

방울이 카드지갑  
(5명)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 대한민국 기후행동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

